

일반논문

공동체 돌봄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특성* : 완주와 제주의 사회적 농장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진** · 김흥주*** · 김자경****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은 정책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법 제도가 정비되면서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은 기증되고 있다. 농업과 돌봄 활동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농업의 정책과 제도화 경로의 과정에서 사회적 농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회적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공동체 돌봄의 논의를 통해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적 농업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개념인 공동체 돌봄에 대해서 분석했다. 공동체 돌봄은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을 국가와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다. 공동체 돌봄의 특성으로 사회적 농업의 정체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농업은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주체성) 일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다양하게 상호지원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하고(연결성), 연결된 이들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느슨하지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농업 활동을 통해 교류하는(관계성), 사회 인프라로서 돌봄의 장(자산기반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 돌봄의 특성을 4가지로 추출하여, 이 특성이 실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완주와 제주의 사회적 농장 사례를 분석했다. 두 곳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 돌봄의 특성이 공통으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역주민들이 핵심 주체로 등장하며,

* 이 연구는 대산농촌재단 2023년 농업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 A03089203).

** 제1저자,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 공동저자,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DOI: <https://doi.org/10.31894/JRS.2024.4.34.1.205>

농업과 비농업 분야와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속적 관계를 통해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교량적 관계를 통해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봄의 장소로서 농장은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농업은 공동체 돌봄으로서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 물론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사회적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농업의 실천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을 해소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사회적 농업, 공동체 돌봄, 주체성, 연결성, 관계성, 자산기반성

I. 서론

공동체 돌봄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지의 공백, 돌봄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돌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공동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들이 왕성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 돌봄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사회적 농업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농업은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사회혁신을 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농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 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실천이 있다. 특히 농촌은 인구구조의 변화, 농촌 소외와 정책의 부재, 복지시설의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품고 있어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회적 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농업의 실천 공간인 사회적 농장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참가자에게 교육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설게되어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은 정

책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법 제도가 정비되면서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농업의 정책과 제도화 경로의 과정에서 사회적 농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회적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공동체 돌봄의 논의를 통해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적 농업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개념인 공동체 돌봄에 대해서 분석한다. 둘째, 공동체 돌봄의 특성을 4가지로 추출하여, 이 특성이 실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완주와 제주의 사회적 농장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농업의 실천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을 해소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농업에 대한 논의

1) 사회적 농업의 추진 과정

한국에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에 대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는 2016년부터라 판단된다. 2016년부터 사회적 농업에 관한 선행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농정연구』에서 특집으로 사회적 농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며 관련 논의가 확산하기 시작되었다. 여기에 특집호를 사회적 농업으로 기획하게 된 이유는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농업의 다기능성과 사회 전체의 공유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에 주목했다고 밝히고 있다(황수철, 2017:

6-7). 다기능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을 먹거리 생산공간이 아닌 생활, 경제, 환경, 문화, 휴식, 교육 등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¹⁾가 소개되고 개념이 정립되고 있지만, 농업농촌의 현장에서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빠르게 실행되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포함했고, 2018년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김영란, 조미형, 2023: 11). 농업농촌이 직면한 다중위기 속에서 당시 정부는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김정섭·김수린·하인혜, 2022: 3). 2019년에는 제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에 근거를 두고 있다. 농어촌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댄 것이다. 2023년에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농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갖췄다.

정부 주도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된 사회적 농업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 농장은 2018년 9개에서 2023년 현재 전국 92개소에 이른다.²⁾ 2024년에는 명칭이 농촌 돌봄농장으로 변경되었고 15개소가 더 선정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이

1)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럽의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 사회적 농업 포털 <https://www.socialfarm.kr/web/index.do> 참조. 단 제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 농장과 별개로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농장을 선정하였다. 이를 제주형 사회적 농장이라 부르며 현재 3개소가 있다.

수립되고 제도화되며 이를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천 현장에서는 느끼는 혼돈은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체의 문제와 이들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현실적인 사안들(전용일, 2019)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채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정책이나 법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지역에서 치유농업사 교육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농장들이 치유농장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2023년까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해 ‘사회적 농장’으로 불리던 것이 2024년부터는 ‘농촌 돌봄농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 농업의 개념은 현장에서 더욱 모호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농업 정책과 법 제도가 달리 적용되거나 실천 현장에서는 목적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 돌봄 농업을 혼용하여 사용하며 이들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지원사업 초기에 선정된 농장과 최근 선정된 농장 사이에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 활동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란·조미형(2023)은 이론으로 정립된 사회적 농업과 농촌 실천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이들을 사회로 통합하는 길목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배제된 이들에 대한 동정과 편견이 사회적 농업을 운영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사회적 농업은 농업과 복지, 돌봄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며 농촌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장으로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김영란, 조미형, 2023: 26).

사회적 농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우려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가치와 특징을 검토하고 그 정체성과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농업의 개념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개념은 관점과 이해에 따라 다양하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 개념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농업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진홍, 2014; 황수철, 2017; 임송수·임은지, 2017). 김정섭(2018)은 다원적 농업에 더해 지역사회 기반 복지 실천이 결합한 형태의 사회적 농업을 강조하며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확장하였다. 그는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사회통합,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농업 실천이라고 보았다(김정섭, 2017: 34). 이아코보·오코너(Iacovo and O'Connor, 2009)는 사회적 농업을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 기반한 돌봄이라는 두 개의 개념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이는 전통적인 농촌의 자조 연결망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의 복지체계에 속한 비공식적 사회연결망과 농업 자원에 기초한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김정섭, 2020: 19).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은 1960년대부터 개별 농장이 실천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사회·돌봄·교육 부문에서 직업으로 실천하고, 농업의 집약화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의 발현 등 마을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점차 발전되어 왔다(Iacovo and

O'Connor, 2009). 2000년대 들어서 유럽의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돌봄(caring)과 치유(healing) 등의 농업의 다기능성을 발휘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왔다(Hassink, 2009).

사회적 농업의 이러한 개념에 따라 그 실천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농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에 기반한 협동과 연대 활동을 전개한다(유리나·황수철, 2019: 153). 사회적 농업은 농민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농사 경험과 실천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과 공유하는 실천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포용의 특성을 갖는다(김정섭, 2023: 8). 둘째, 문제해결 과정을 모두 농업인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공무원,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이 만나 새롭게 관계를 맺고 실천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의 특징을 갖는다(유리나·황수철, 2019: 153). 이처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넘어 사회 문제와 농촌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농업·농촌 실천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그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섭(2017)은 사회적 농업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노동 통합형, 돌봄형, 교육형으로 구분하였다. 노동 통합형은 일자리가 없는 이를 농장에서 고용해 영농에 종사하게 하는 실천이다. 돌봄형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에게 농업의 치료적 요인과 결합한 돌봄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실천이다. 교육형은 기술·지식 등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 혹은 농업이나 농촌을 접한 적이 없는 도시의 아동·청소년 등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을 얻거나 농촌을 포함한 전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돕는 실천을 말한다.

최근 들어 사회적 농업의 돌봄 기능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 가지는 공동체적 돌봄 특성이 농촌과 사회에 확산한 돌봄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돌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회적 농업을 농업·농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농업을 통한 농촌의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지향적 실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이 갖는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다.

2. 돌봄과 공동체 돌봄에 대한 논의

1) 돌봄의 재구성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돌봄’이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다. 삶의 한 권에서 보이지 않게 수행되는 비공식 복지로서 돌봄이 아니라, 돌봄을 삶의 중심에 놓고 돌봄을 재구성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돌봄은 삶의 필수적 구성요소이자 모두의 삶에 관련되었기 때문이다(석재은, 2020: 3). 『돌봄선언』에서는 돌봄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돌보는 공동체는 영국 프레스턴, 미국 클리블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의 협동조합 활동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례들은 협동조합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공동체 자산을 형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유용한 공공자원을 구조화했다. 이를 통해 상호부조를 쉽게 하고, 공동체 운영방식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의 사회 생태계를 공동체 차원에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지방자치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기도 했다(더 케

어 컬렉티브, 2021: 104-111). 그리고 보편적 돌봄을 대한 사회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보편적 돌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모든 돌봄이 우리의 가정에서뿐 아니라 친족에서부터 공동체, 국가, 지구 전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선시 되는 것”이다(더 케어 컬렉티브, 2021: 41). 이러한 논의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 지우지 않고 국가, 시장,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논의에 연결된다(최영, 2024: 13-14).

한국에서 돌봄의 사회화는 공적 돌봄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확장되었다(석재은, 2020: 1). 공적 돌봄은 주로 국가 개입을 통해 돌봄 노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최영, 2024: 14).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제도, 방과 후 아동 돌봄 지원 제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적 돌봄 제도가 정비되며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공공 기관이 모든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 기관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정부는 돌봄 서비스 시장을 확대했다. 그 결과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는 민간기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류연규, 2012: 148).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일자리는 사회복지 일자리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조귀동, 2023: 144).

2018년 이후 공적 돌봄에 변화가 나타났다. 공적 돌봄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³⁾을 발표하고,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

3)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의 자료 참고.

<https://www.korea.kr/goNews/resources/attaches/2018.06/07/2bfdc3fdf305bd123b188163d6434e5d.pdf>

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오영인, 2019: 17 재인용).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4년간 노인 통합돌봄,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 정착,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노숙인 자립지원으로 나뉘어 시행되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분절화 된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2023년 정부가 바뀌면서 이 사업의 명칭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이 되었고, 사업 대상은 노인으로 한정되었다.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에게 부담되는 비공식 복지의 개념을 넘어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공적 돌봄이 제도화되고 있지만, 그 한계는 크다. 공적 돌봄이 돌봄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제도화된 공적 돌봄은 “기본적으로 시설화를 촉진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김보영, 2021: 48). 예를 들어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 동네에서 살면서 받는 서비스는 1등급(와상 상태)이 하루 4시간이 최대이며, 나눠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시설에 들어가면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공적 돌봄(장기 요양보험)으로 인해 돌봄의 무게가 경감되기는 하지만 가족의 희생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가족들은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류연규(2012)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느냐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돌봄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민간기관이 주로 공급하는 돌봄 서비스 시장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류연규, 2012: 121). 실제로 ‘돌봄의 시장화’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적 돌봄 사업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2) 공동체 돌봄에 대한 논의

한편 지역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 돌봄으로서 ‘돌봄의 사회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공동체 돌봄은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의 무게를 지역에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다. 공동체 돌봄에 대한 사례 연구는 주로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주체가 되어 돌봄 활동을 한 사례 연구와 최근 공동체 논의에서 대두되고 있는 커먼즈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경제가 주체가 되어 나타나는 공동체 돌봄은 주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수정(2012) 마포 두레생협의 노인 장기 요양 보호기관인 어깨동무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공동체 돌봄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마을의 인프라 자산과 인적 자원이 중요함을 밝혔다. 어깨동무가 있는 성미산 마을은 이미 지역의 공동체 활동이 왕성한 곳으로 지역사회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곳이다. 어깨동무와 생협 조합원 활동의 연계는 돌봄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의 인프라를 연결하여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동체 돌봄 문화를 끌어냈다. 이러한 공동체 돌봄은 기존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메웠으며, 여성들이 전담했던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시도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느슨한 연대는 강한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었다.

마포 두레생협은 2013년 올림 두레생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어깨동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돌봄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를 ‘생협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조합원들의 돌봄 욕구에 대응할 인력 양성의 문제, 돌봄 사업의 재정적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지만(이현진, 김홍주, 2015), 기존 조합원 중심의 활동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높여가는 활동으로 진화하

고 있다(김홍주, 이현진, 김철규, 2013). 생협 복지는 “정부와 같은 공적 영역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이용자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돌봄의 중요한 사례이다(김홍주, 이현진, 김철규, 2013: 189).

조유성(2020)은 한살림서울 생협의 돌봄에 대해 분석하면서, 생협 복지를 생협 돌봄으로 수정해서 사용했다. 복지는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한 방향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돌봄은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서로 돌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조유성, 2020: 92). 한살림서울 생협의 돌봄 정책 비전과 원칙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돕고 존중하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근거지에 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조유성, 2020: 93).

한살림서울 생협은 2012년 돌봄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한살림 생협의 연합 차원에서 돌봄의 필요를 협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살림 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탐색하였다(장지연, 2016: 91-92). 2005년에 한살림 생협의 비전이 농업살림, 밥상살림, 생명살림에서 지역살림이 추가되었지만, 그동안 한살림 연합과 각 지역 생협에서는 지역살림 운동이 구체화 되지 못했다. 한살림서울 생협의 돌봄에 대한 고민은 지역살림 운동의 의제로 ‘돌봄’을 부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협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돌봄의 사례는 돌봄의 위기를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공동체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돌봄 위기의 대안으로 커먼즈 개념을 도입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커먼즈는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백영경, 2017: 116). 따라서 기존의 복지와 공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화된 돌봄을 지양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커먼즈의 개념은 돌봄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백영경(2017)은 복지와 커먼즈를 매개하는 개념으로 복지 커먼즈를 제안했다. 복지 커먼즈는 “공공서비스, 의료, 건강의 상품화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생존에 위협을 느낀 공동체들이 자원을 가지지 못해 시민으로 사는 삶을 박탈당해온 현실에 대한 저항”이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적인 자원을 공동체가 확보하여, 이 자원을 기반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지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백영경, 2017: 134). 홍덕화(2018)는 여기에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의 측면에서 복지 커먼즈가 만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살림서울의 돌봄 사례를 분석하며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강화하여 돌봄과 의료, 건강, 일자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모델”의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돌봄 운동의 이상과 돌봄 실천의 현실에는 매우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공동체적 관계의 확산을 꾀하는 방식으로써 돌봄 활동이 기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만 한살림 서울의 돌봄 활동이 시장화된 복지서비스의 대행이 아니라 한살림이 지향하는 지역살림 운동이자 복지 커먼즈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공동체에서 돌봄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례가 등장했다(박윤희, 백일순, 2021). 한국 복지의 성격을 드러내는 개인(가족) 자산기반 복지국가의 형태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산이 바로 아파트이다. 아파트 가격의 등락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공동체 문화가 부재한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강한 한국에서 이러한 사례는 매우 희귀하다. 한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아파트(민간임대주택) 위스데이 별내에서 입주민들이 틈새 돌봄(공동육아)을 하는 사례를 분석한 박윤희와 백일순(2021)은 돌봄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커먼즈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때 커먼즈는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아래로부터의 권력

형성” 즉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틈새 돌봄은 긴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활동가를 매칭하여 아파트 내에서 아이를 돌보는 프로그램이다(박윤희, 백일순, 2021: 234). 틈새 돌봄은 교육을 통해 입주민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아래로부터 주민공동체를 조직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었던 돌봄이었고,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공동체적 문제해결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박윤희, 백일순, 2021: 238-239). 틈새 돌봄은 공적 돌봄에서도, 시장화된 돌봄에서도 할 수 없는 공동체의 유연한 돌봄 대응이었다.

3) 공동체 자산기반 돌봄 사회를 지향하는 공동체 돌봄의 특성

앞서 공동체 돌봄의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공동체 돌봄은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자산이 확립되어 흔들리지 않은 기반이 요구된다. 공동체 자산은 물적 토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동체 돌봄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참여자들이 스스로 계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이현진, 김홍주, 2022: 92).

공동체 돌봄은 공동체 자산으로서 돌봄의 장이 마련되고, 지역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공동체가 돌봄의 운영 방식에 의미 있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쉽게 협력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힐러리 코텀, 2020). 이렇게 공동체 돌봄의 조건들이 갖춰지면 돌봄 서비스가 상품화되지 않게 하며, 지역의 여

러 자원을 이용하며 협력할 수 있고, 국가의 공적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공동체 돌봄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적 돌봄과 공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써 공동체 돌봄이 갖는 특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공동체 돌봄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남훈(2021)은 공동체 돌봄을 주민이 주체로서 돌봄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에 참여하는 체계를 공동체 돌봄이라 개념화하면서, 그 특징을 주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 방법을 계획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돌봄의 주체로서 주민의 협력과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보았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욱 여실한 지리적 불리함, 물적·인적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공적 돌봄체계로 충당할 수 없는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에 농촌 지역 특성에 기반한 돌봄을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은정(2015)은 “휴먼 서비스 공급에서 관료제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공동체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적 접근의 핵심적 속성을 지역성과 참여성으로 정리하였다. 이현진과 김홍주(2022)는 농촌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확산을 주장하며, 사회적 농업의 공동체 돌봄 실현 조건으로 참여자의 당사자성, 지역사회 기반 자원 활용, 관계 중심의 실천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공동체 돌봄에 대한 개념과 사례, 특징을 검토한 결과 공동체 돌봄의 특성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체성이다. 국가 중심의 복지는 전문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공급자에서 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돌봄의 공급자와 수혜자가 이원화되고, 이 둘은 모두 사회적 약자가 다수이다. 그러므로 돌봄의 공급자나 수혜자는 자기 결정권이 없

다. 복지의 관점에서 당사자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미정, 주경희, 남세현, 우승명, 2019). 한국의 복지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970년대는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복지를 시작했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대규모 이용시설과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이 확대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때 장애인 자립생활을 중시하게 되면서 ‘탈시설’ 운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김용득, 2018: 495-496). 일본 베델의 집 사례(오세근, 이명호, 2022)와 이탈리아의 정신보건 개혁 과정(백재중, 2018)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돌봄은 “지역사회의 이웃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돌봄 지원”(김용득, 2018: 504)을 하는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돌봄의 주체가 된다. 공급자와 수혜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지역의 주체성이 중요하다.

둘째 연결성이다. 공동체 돌봄은 지역사회의 수많은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김승섭(2017)은 사회역학 연구자인 리사 버크먼의 사회적 관계망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서로 연결될수록 건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공동체 돌봄의 중요한 속성이 연결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연결한다는 의미는 서로 기대어 상호의존하고, 상호의존을 통해 자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야스토미 아유무(2018)는 “자립은 의존하는 것”이라 했다. 자립은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의존하는 대상이 늘어날 때 더욱 자립한다고 한다(야스토미 아유무, 2018: 19-37).⁴⁾ 그래야 돌봄이 계

4) 야스토미의 자립에 대한 명제는 원래 경제학자인 나카무라 히사시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의존하는 상대가 줄어들면 중속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다양한 지역사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가족이나 시설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김용득(2019)은 “상호의존을 조직화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자연스러운 삶과 돌봄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다(김용득, 2019: 220). 우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장소와 연결되고, 그 연결 상대가 다양할수록 주체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자립을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의존할 상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佐野真紀, 2019). 의존할 상대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결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체 돌봄은 연결될수록 자립할 수 있기에, 다양한 형태의 상호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의 연결망 또는 협력망 구성이 중요해진다. 지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자원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성이다. 공동체 돌봄과 개인/가족 기반 돌봄, 그리고 국가에 의한 공적 돌봄은 돌봄 주체 간 관계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에 의한 공적 돌봄의 형식으로 설계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역시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돌봄은 수혜자와 제공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생산되는 되는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돌봄은 두 주체 간 관계에 기반하여 공동생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정, 2015: 158). 즉 돌봄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결 그 이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돌봄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이들을 연결할 때, 주체에 따라 어떤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긴 시간 동안 서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지역의 어린이처럼 농장에 놀러오며 두루두루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힐러

리 코텀(2020)은 “관계가 변화를 만드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좋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문제라 지적했다(힐러리 코텀, 2020: 122). 공동체는 대부분 결속적 관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한 유대감을 통해 이웃끼리 연대하고 돌봐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강한 연대는 결속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현재, 대부분 사람들은 느슨한 연대와 같은 교량적 관계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워한다(힐러리 코텀, 2020: 123). 공동체 돌봄은 교량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자주 만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꾸준히 반복해서 즐거운 일을 하며 교류할 때 관계는 필수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에릭 클라인버그, 2019: 19).

넷째, 자산기반성이다. 지역에서 돌봄의 장은 지역 공동체 자산이 된다. 김용득(2019)은 돌봄에서 지역 자산 중심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돌봄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거부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득, 2019: 220). 더 케어 컬렉티브(2021)의 논의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에 의한 돌봄 체제에는 공동체 자산의 구축과 생산에 관한 통제권뿐 아니라 민주적인 소유권과 통치에 대한 구조적 지원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체 자산에서 중요한 점은 자치의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의사결정 하여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이 공동체 돌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스데이 별내 아파트 공동체의 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커먼즈로서 돌봄이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돌봄의 장은 사회 인프라로서 역할을 한다. 사회 인프라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아무 곳이나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유대를 만드는 장소를 의미한다. 여러 공공시설 등의 공공 인프라도 있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지 않아서 사회 인프라와는 다르다. 공동체 돌봄의 장은 사회 인프라가 되어 사람들의 접촉제 역할을 하며 삶에 필요한 교량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에 참여하며 튼튼한 사회적 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동체 돌봄의 특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공동체 돌봄은 돌봄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체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연결되어 서로 의존하며 자립을 꾀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돌봄은 구성원들이 대등하고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인프라로서 공동체 자산이 된다.

3. 공동체 돌봄으로서 사회적 농업 분석을 위한 분석 틀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며 공동체 돌봄으로서 사회적 농업을 조망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 사회통합과 사회혁신의 기제로 주목받는 이유는 사회적 농업이 가지는 공동체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만들어내기에 사회혁신이 가능하다. 농장을 기반으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고 연대하며 협력 연결망을 형성하기에 공동체 회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이효진, 2020). 이러한 점은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의 여민동락 공동체는 주민이 이웃 주민

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리는 관점으로 지역 돌봄을 함께 만들어 갔다(이현진·김홍주, 2022: 110). 전북의 키움협동조합은 사회적 농업을 통해 관계를 맺은 당사자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이효진, 2020). 만성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사례에서도 새로운 돌봄체계의 대안으로서 공동체 돌봄을 가능하게 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현진·김홍주, 2022: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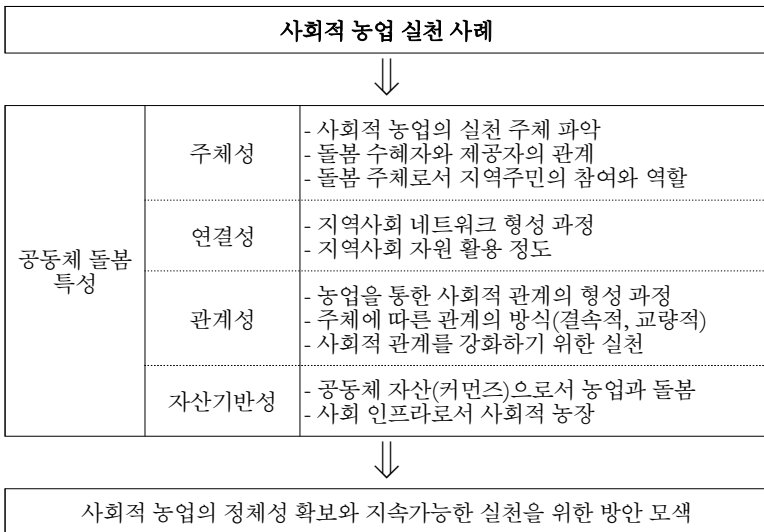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농업은 공동체 돌봄 및 농촌 공동체의 자산으로서 중요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이현진, 김홍주, 2022: 112-113), 이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돌봄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공동체 돌봄의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개요를 제시한 것이다. 공동체 돌봄의 특성으로 주체성, 연결성, 관계성, 자산기반성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사회적 농업의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사회적 농업 실천과정에서 주목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성의 특성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실천 주체들은 누구이며, 돌봄의 당사자는 사회적 농업에 어떻게 참가하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우선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충족되는 돌봄 실천과정에서 수혜자와 제공자의 관계는 공적 돌봄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동체 돌봄의 핵심 주체인 주민들이 사회적 농업에 참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공동체 돌봄의 주체성 정도를 파악할 것이다. 둘째, 연결성의 특성에서는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인

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과정과 정도를 분석한다. 셋째, 관계성의 특성에서는 농업을 통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사회적 농업의 노력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농업에 참가하는 주체들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관계의 방식 및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산기반성의 특성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실천 결과인 농업과 돌봄이 공동체 자산으로써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의 실천 무대인 사회적 농장은 지역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 틀과 분석내용에 근거하여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농업 실천이 공동체 돌봄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 논문의 개요와 분석 틀

Ⅲ. 연구방법 및 연구사례

이 연구는 사회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공동체 돌봄에 주목한다. 이런 활동 사례의 내용 소개와 의미를 탐색하고 공동체 돌봄으로서 사회적 농업 실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 연구는 개인, 집단 또는 조직과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보편적인 연구방법으로 사용된다. 사례 연구는 단일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에 관한 연구이며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Stake, 1994). 사례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수집한 연구 자료는 주로 사례의 사회적 농장 내부에서 기록된 문서 및 기록정보, 주요정보 제공자로부터 수집한 구술자료, 참여 관찰 시 수집한 관련자들의 인터뷰 자료와 연구자가 기록한 관찰 기록 등이다.

사례 연구에서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의 수보다는 전략적인 사례의 선택이 중요하다(Flyvberg, 2006).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의 모법인의 성격이 다른 곳을 선택하였다.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을 바라보거나, 복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을 바라보는 경우 모법인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농업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농업의 유형이 다른 곳을 선택했다. 사회적 농장 유형과 서비스공동체 유형에 따라 연결망 형성과 관계 형성이 다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례의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사회적 농업의 연결망이 서로

다른 곳을 선택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적 경제 분야가 양적으로 성장하며 지역별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도는 다르다. 따라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진영이 사회적 농업과 맺고 있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농업의 실천 정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지역 돌봄 문제를 사회적 농업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이에 이 연구의 대상은 완주 더불어해봄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농장인 ‘은혜의 농장’과 제주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의 사회적 농장인 ‘담을밭’을 선정하였다. 은혜의 농장은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농업에 진입 한 곳이며, 제주 담을밭은 귀농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농업을 시작한 곳이다. 다음 장에서 두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했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헌 연구를 통해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공동체 돌봄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정리했다. 현장 연구는 6월과 8월에 두 차례 진행했다. 제주의 현장조사는 한살림제주 생활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한살림제주 생산자회, 제주사회적농업연구회 구성원들과 면담하였다. 완주의 현장조사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은혜의 농장을 비롯하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맥락을 전해 줄 주요정보 제공자와 면담하였다. 또한,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간담회를 통해 완주의 사회적 농업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주요정보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및 현장조사 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정보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및 현장조사 일정

주요정보 제공자	성별	활동기간	직위	주요제공정보	인터뷰일시
사례 A	여	5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킹 상임이사	조직의 역사와 활동 전반, 사회적 농업 추진 사례 소개	2023.08.25
사례 B	여	3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킹 팀장	사회적 농업 및 거점농장 활동 전반	2023.08.25 2023.08.26
사례 C	여	2년	더불어해봄 돌봄반장	더불어해봄 사례, 지역 공동체 돌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2023.08.26
사례 D	남	5년	한살림제주 생산자연합회 사무국장	한살림제주의 사회적 농업 실천	2023.06.23
사례 E	남	15년	밥상살림농업회사 법인 대표	한살림제주 지역살림 운동 전개 과정 및 지역 연계 활동	2023.06.23
사례 F	남	5년	밥상살림 사회적 농장 담을밭 대표	한살림제주 사회적 농업 실천 전반, 담을밭 및 제주 사회적 농업연구회 활동 내용	2023.6.24 2023.8.24

IV. 사회적 농업의 공동체 돌봄 활동 사례 분석

1. 사회적 농업 진입 배경

1) 완주 은혜의 농장

은혜의 농장은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이하, 더불어해봄)이 완주군 소양면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이다. 더불어해봄의 모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은혜의 동산(이하, 은혜의 동산)으로, 지체 뇌병변 장애인 주거시설이다.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가정형태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 자립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기준 25명의 장애인이 거주(남 23명, 여 2명)하고 있다. 거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프로그램으로 텃밭 활동을 진행하다가 2019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와 함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이들의 활동 무대인 은혜의 농장을 만들었다.

2년여 동안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며 농업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실험하였고 2021년 이를 실현할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을 창립했다. 더불어해봄의 조합원은 은혜의 동산 대표, 완주 사회적기업 떡메마을 대표, 지역 후원자,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022년에는 농식품부 '지역서비스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은혜의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을 구축 해가고 있다.

2) 제주 담을밭

제주 담을밭은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이하, 밥상살림)이 제주시 구좌읍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이다. 밥상살림은 한살림제주 생활협동조합(이하, 한살림제주)이 가까운 먹을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8월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제주 담을밭의 모법인은 한살림제주이다. 한살림제주는 2008년 설립을 준비하면서 '지역살림'이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지역살림은 한살림 조합원들이 다양한 삶의 위기에 직면하자 오랜 학습과 숙의를 거쳐서 2006년 한살림 운동 20주년을 맞이

하여 새롭게 추가된 비전이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사업 및 먹거리와 생활 공급 사업을 넘어서, 조합원들이 서로 돌보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운동으로서 지역살림을 고민했었다. 한살림제주는 조합원을 위한 공동체 생태 텃밭을 만들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및 텃밭 활동 등 여러 농업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다양한 돌봄 활동을 시도했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공부방을 개소하고,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리빙랩 활동을 통해 먹거리 돌봄 사업을 진행하며 공동체 돌봄에 대한 감각을 키워갔다.

실제 한살림제주가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고자 했던 계기는 생협 차원에서 지역살림을 위해 공동체 돌봄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제주에서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었다. 한살림제주의 생산자와 실무자, 귀농인 3명이 자체 학습을 통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한살림제주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2019년 12월에 한살림제주는 밥상살림을 주관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했다. 2020년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된 답을밭은 대표 1명과 상시활동가 2명 있으며,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은 제주지역 귀농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교육 활동이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고령연구센터, 이주여성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답을밭 대표는 제주에서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제주의 사회적 농장 6곳과 농업과 복지 연구자 3명으로 제주 사회적 농업연구회를 발족하였다. 제주 사회적 농업연구회는 서로의 현장을 방문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농장의 고민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표 2〉 사회적 농장 비교

	은혜의 농장	담을밭
모법인	은혜의 동산	한살림제주
운영 주체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대표자	사회복지시설장	한살림 구좌생산자공동체 대표
지원유형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서비스 공동체 지원사업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회적 농장
지원 연차	3년 차	5년 차
지원 배경	장애인 소일거리 창출	귀농인의 지역 정착 문제해결
핵심 연계 조직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은혜의 동산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 사회적 농업연구회
주요 참여자	지체 및 발달장애인, 아동, 노인	귀농·귀촌인, 지역 아동, 이주여성
주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치유농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미용 서비스, 병원 동행 등 일상 돌봄	귀농·귀촌인 교육과정 운영, 발달 장애아동과 가족 농장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농장 등

자료: 연구자 작성.

2. 공동체 돌봄 특성별 사회적 농업 실천

1) 주체성

(1) 완주 은혜의 농장

은혜의 동산이 완사넷의 사회적 농업에 참가한 것은 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농업이라는 조금 특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완사넷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시켜주세요’ 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인덕 두레마을에서 시작했는데, 지역 어

르신들이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안 쓰던 밭에서 뭔가를 자꾸 하니깐 관심을 보이셨어요. 얼마 지나고 3월달 부터는 지역 할매 세분이 노인 멘토로 농사를 함께 해주셨어요. 장애인들이 상추 뿌리가 드러나게 심어놓으면 다시 심어주시고, 수확하면서 이파리 다 뜯어놓으면 상추 따는 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참여자들이 농장에 가지 않는 날들도 나오셔서 풀도 메주시고요.”(사례 C)

지역사회 주민 및 타인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 시설 장애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고 소통하게 되었다. 지역 어르신들 역시 장애인들과의 소통이 익숙하지 않아 꺼렸지만, 차츰 경계를 허물어 자신의 기술과 품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농사는 지역 어르신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한 일이다 보니 작물과 농사법에 대해 알려주고 시범을 보이며 뿌듯함을 느끼고 소일거리를 하며 농촌 노인들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활동이 되었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로 나뉘기보다 참여자 모두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었다.

은혜의 농장은 시설 장애인의 농업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 돌봄 활동의 무대가 된다. 원암 노인 교실과 완주군 가족센터의 노인·다문화 활동, 완주 지역자활센터와 완주군 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 돌봄 활동 등 지역사회 돌봄 시설 및 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계하고 있는 단체들은 번갈아 가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협력하여 공동체 돌봄을 실천하기도 한다.

“2022년에는 농장 활동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여러 단체들과 했는데 원암 노인 교실,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했어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들이 농장에서 일하러 오시기도 해요. 그럼 또 그분들(일자리 사업 참여자)이 저희 시설 장애인들의 선생님이 되기도 하죠.”(사례 C)

“농장 활동하다 보니 지역 어르신들이 마땅히 갈 곳도 할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또 어르신들이 ‘평생 농사지었는데도 농사해야 되냐’ 하셔서 어르신들하고는 농업 활동은 줄이고 치유프로그램 진행했고요, 그게 발전돼서 농한기에 경로당이랑 마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했죠. 그러다 보니 여름방학 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손주들이 방학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아이들 밤까지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어린이들도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하고…”(사례 C)

농장 활동이 농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주민이 직접 돌봄을 기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인 시설 장애인, 재가 독거노인, 보육원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시한다. 지역주민이 돌봄 주체가 되어 주민을 돌보는 활동을 지속하여 생활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농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다.

(2) 제주 답을받

제주 답을받은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도와 농촌 지역의 활력을 찾고 농업과 복지를 연결하여 공동체 돌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제가 구좌지역으로 귀농하고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 다 나이 드시고, 좀 젊은 사람이 있어야 지역에서 교육이든 체험이든 할 수 있을 텐데, 지역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제주에 귀농·귀촌인들이 있고 지역 자연경관이나 농장들 자원이 있으니 귀농·귀촌인에게 교육하는 방식으로 시작해보자. 그래서 다시금 지역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 있게 역할을 해보자 의견을 모았고요. 귀농하는 청년들이 막상 와서 텃세나 그런 것, 모르는 게 많은데 알려주는 사람은 없으니 조금 하다가 다시 가버리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농사 방법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옆에서 곤란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지역으로 왔다가는 청년들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이나 중장년 귀농인분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과정을 개설해서 함께 하자...”. (사례 D)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작한 것이 ‘사회적 농업 실천가 양성 과정’ 사업이다. 제주지역 귀농·귀촌인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영농 교육과 실습뿐 아니라 제주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 살이 방법 등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담았다. 이러한 귀농·귀촌 교육사업은 ‘귀농 정착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4기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이렇게 교육받은 귀농·귀촌자가 매년 3~5명씩 약 20명에 이른다.

담을밭 귀농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독특한 점은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는 다음 기수의 멘토가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교육받은 것을 실습하고 선배 귀농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며 더욱 단단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귀농·귀촌인들은 별도의 농장 부지를 활용하여 담을밭 교육에서 배운 사회적 농업 활동을 그

대로 실습해보는 것이다. 교육생들은 돌봄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에 사회적 농업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돌봄의 대상에서 지역사회 활력을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 이주여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들이 담을밭 농장에 오고 가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 분석

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체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분야의 전문가나 경력자가 핵심 주체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주민이다. 둘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역주민이 농장의 운영과 사업을 관장하고 지역을 조직한다. 셋째, 참여자들은 농업 활동을 통해 각자의 방법대로 자립을 추구한다. 넷째, 돌봄 행위의 주체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당사자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돌봄은 전문성과 특수한 기법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치료적 접근은 아니다. 오히려 공적 복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돌봄이라기보다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들은 사람들이 모이고 의견을 나누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했을 때 이를 수 있는 것들이다.

〈표 3〉 공동체 돌봄의 특성-주체성

	구분	완주 은혜의 농장	제주 담을밭
주체성	실천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활동 주체: 시설 장애인 및 지역 농민 ■ 돌봄 활동 주체: 지역사회 복지 관련 조직 및 지역주민, 법인 직원(돌봄반장) ■ 돌봄 수혜자: 시설 장애인, 독거 어르신, 다문화 가정 아동 등 소양면 단위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활동 주체: 지역 농업인, 귀농·귀촌인 ■ 돌봄 활동 주체: 지역 농업인, 프로그램 수료한 귀농·귀촌인 ■ 돌봄 수혜자: 귀농·귀촌인, 발달장애 아동, 이주여성, 지역사회 아동 등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상이 ■ 시설 장애인들의 농업 활동에 독거노인이 멘토가 될 때는 수혜자와 제공자의 명확한 구분 없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 치유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에서는 서비스제공자와 수혜자가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 이후 또 다른 참여자를 돕고 가르치는 돌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에 주력 ■ 돌봄 수혜자가 제공자가 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을 이루고자 함
	지역 주민의 참여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조직 및 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농사일, 돌봄 사업 수행, 돌봄 서비스 제공 등 활동에 필요한 인력은 모두 지역주민임 ■ 생활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 조직화 ■ 면 단위의 지역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참여자도 면 단위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민 중심으로 농장 운영 ■ 기능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조직화 ■ 한살림 생산자 공동체,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 발달장애 아동 가족 등 외부 주체들이 유입되며 지역 활력을 도모

2) 연결성

(1) 완주 은혜의 농장

농장 활동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돌봄 활동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 해봄을 설립하고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었다.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조직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게 네트워크인지도 잘 모르고 일을 해야 하니깐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양면 지역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였더라고요. …코로나 전까지 노인학교를 했던 소양면 교회협의회를 찾아가서 어르신들 함께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네트워크가) 시작 되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 봉사활동도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했구요. 그러다 그 옆에 있던 방법대에서도 오셨고요. 지역 어르신 병원 다니고 건강관리가 필요해서 마음사랑 정신 도립병원, 예순한의원 등 찾아다니며 같이 해주십사 말씀드렸어요. 원래 해오던 농장 활동과 치유프로그램에 이런 활동들을 추가하면서 지역사회 여러 기관에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사례 A)

더불어해봄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확장하고 이들을 조직하며 은혜의 농장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지원을 위해 삼덕 무료 급식소와 소양 지역주민봉사단이 협력하거나,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삼덕교회 안에서 봉사단을 조직하기도 하고, 이·미용 서비스를 위해 지역 미용실과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하였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수확한 작물 중 일부는 사회적기업인 완주 떡메마을에서 전량 구매하는 방식이다.

“은혜의 농장 특색을 갖기 위해 메리골드라는 꽃을 많이 심었어요. 꽃을 따고 말려서 꽃차를 만들어 판매했죠. 그동안은 로컬푸드에서 건조용 식물로 받아줬는데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해보려던 그해 방송에서 무허가 시설 꽃차가 비위생적이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나가면서 판매하지 못하게 됐어

요. 그때 저희 완사넷에서 비누 만드는 협동조합과 연계해줘서 메리골드 비누를 개발하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사례 B)

더불어해봄은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조직과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먼 단위 행정조직은 물론,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주민조직, 사회적 경제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할 협력자를 찾고, 만나고, 의논하며 연결망을 넓혀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필요와 자원을 조직하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더불어해봄이 1년 6개월 동안 연계한 지역사회 기관들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지역행정기관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 3곳, 중간지원조직 2곳, 사회복지시설 5곳, 민간 조직 4곳, 주민조직 4곳 등 총 20개소에 이른다(이현진, 2024: 114-115).

(2) 제주 담을밭

제주 담을밭은 농촌사회 활력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적 농업 관련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직능기관들과의 연대하였다. 네트워크 기관들은 참여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거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 및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햇살 담은 팥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 발굴과 신청 연계는 제주대학교병원 내의 제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담당한다. 활동 중 일부는 담을밭 옆에 있는 비자림 숲 힐링센터에서 진행된다. 비자림을

산책하거나 우천 및 폭염 시 힐링센터 내부 놀이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스트레스 검사, 모세혈관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는 농업 활동 전문가 외에 작업치료 전공자, 원예환경 전공자 등이다. 지역대학 출신 전문가나 담을밭 귀농·귀촌 교육 수료생이 전문 강사로 참여한다. 귀농·귀촌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을 강사로 참여시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훈련받은 것을 실습하도록 하며 강사비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담을밭이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연계한 지역사회 기관은 법인 관련 기관 3개소, 복지시설 6개소, 농업 및 환경 관련 기관 3개소 등 12개소에 이르며, 담을밭 수료생과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강사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이현진, 2024: 94-95).

둘째, 제주지역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적 농장들이 연대하여 ‘제주 사회적 농업연구회’를 조직하였다. 회원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선정한 사회적 농장 및 사회적 농장을 운영했던 기관, 관련 연구자, 사회적 농장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사회적 농장 6개소의 관련자 10명, 연구자 3명 등 총 13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정책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형 사회적 농업 실천에 앞장서며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의 관계망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분석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나드는 연결(김정섭, 2023: 12)이 필요하다. 특히 돌봄 실천을 위해서는 비농업 분야와의 다양한 형태의 연계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공동체 돌봄에서 연결

은 곧 자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례 농장 모두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주의 사례에서는 완사넷이라는 지역 네트워크 조직이 연결망의 핵심 자원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모법인의 장점을 살려 복지기관, 지역주민 조직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주의 사례에서는 담을밭의 수료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연결망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서로 의존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농촌에 정착하여 자립을 향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공동체 돌봄의 특성-연결성

구분	완주 은혜의 농장	제주 담을밭
연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네트워크는 지역의 행정조직과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를 위한 주민조직과 유기적 연결 ■ 행정기관 2개소, 사회적 경제조직 3개소, 중간지원조직 2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민간 조직 4개소, 주민조직 4개소 등 총 20개소의 지역 및 주민조직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네트워크는 한살림제주와 지역 복지시설, 제주 사회적 농업연구회 ■ 인적 자원으로 지역 생산자 조직과 교육 수료생, 지역대학 학생과 졸업생 등 ■ 법인 관련 기관 3개소, 복지시설 6개소, 농업 및 환경 관련 기관 3개소 등 12개소와 연계

3) 관계성

사회적 농업이 공동체 돌봄으로 이어질 것인지 돌봄 프로그램의 하나로 남을 것인지는 사회적 농장과 연결된 이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농장에서의 활동이 어떻게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며 이러한 관계가 당사자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완주 은혜의 농장

더불어해봄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이를 계기로 공동체 돌봄에 이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완사넷이 있었다. 완사넷은 완주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발전을 목표로 2018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더불어해봄은 설립 이전부터 완사넷을 지원 체계 삼아 넓은 지역사회 연결망을 갖추었다. 완사넷에서 주관하는 ‘완주 사회적 경제포럼’의 분과 활동하면서 사회적 농업, 장애인, 복지, 환경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할 수 있었다. 이처럼 더불어해봄과 완사넷의 결속적 관계는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원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더불어해봄은 이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 돌봄을 실천한다. 핵심은 이러한 서비스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조직하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해봄이 실천해온 사회적 농업 활동에서부터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느슨한 연대의 과정이다.

“은혜의 농장에서 수확한 배추를 좀 뜻깊게 쓰면 어떨까 해서 소양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일회성으로 김장 나눔을 한번 했어요. 삼덕 무료 급식소 연계해서 200포기를 지역 어르신들, 무료 급식받으시는 어르신에게 한 통씩 전달했죠. 그게 계기가 돼서 2022년에 농장 활동 이어서 삼덕 무료 급식소에 도시락 지원도 했어요. 양은 많지 않지만 원래 나가는 도시락에 반찬 한두 가지 더 없는 방식으로요. 이런 일을 한다고 삼덕교회에 알려지니까 삼성 봉사대하고 연결되어서 어르신들 맥에 전등 같이주고 수도 고치고 방충망 같이주는 일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어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한 회원들이 연결해줘서 미용 봉사해 주시는 분도 만나고, 또 다른 봉사대가 결성되고(…)” (사례 A)

더불어해봄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교실을 진행한다. 폐쇄되어 15년 동안 방치되어 온 사회복지시설을 맡아 손수 꾸미고 정돈해 노인 교실을 만들었다. 고령 농업인, 독거노인 등 지역 노인 50여 명과 농장 활동, 원예 치료, 노래 교실을 진행한다.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지역 의료기관 및 한의원과 연계해 노인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도 함께 돌본다.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노인 교실 어르신들이랑 소풍을 갔어요. 그날 하필 비가 왔는데, 예쁘게 입고 오신 옷 위에 죄다 우비를 쓴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즐겁게 웃으셨는지, 할머니들이 ‘착하게 살았나 봐,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라고 하세요. 이럴 때마다 하기를 잘했구나 싶어요.” (사례 A)

더불어해봄의 생활 돌봄 활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은혜의 농장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싶지만 마땅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들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돌봄의 장이다.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공동체 돌봄의 장에 자연스럽게 소속되고 연결되며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을 형성해가고 있다.

(2) 제주 담을밭

제주 담을밭의 귀농·귀촌인들은 1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농업과 지역 살이를 배우게 된다. 이들은 수료 이후 다시 다음 회기 교육생들 지도하는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른 마을의 사회적 농장에서 실습을 이어갈 수 있다. 이들은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학습과 수련을 반복하며 농장의 구성원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로서 결속적 관계를 강화해갔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이후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의존하며 연대할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 담을받은 농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여자와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각자 존재하지만 1년에 3번은 모두가 와서 즐길 수 있는 팜파티를 개최한다. 팜파티 주제는 절기에 맞는 작물에 따라 달라진다. 초여름 감자 수확과 감자 찜먹기, 작은 음악회, 옥수수 수확 및 나눔, 고구마 수확과 바비큐 파티와 같은 즐길 거리를 준비한다. 이때에는 장애아동과 가족,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선생님, 이주여성, 지역 농업인, 담을받 수료생들이 함께하며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계를 확장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지향은 담을받 농장의 농사 과정 전반에 드러난다.

“저희 농장 구성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경제 작물,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열대 작물. 아열대 작물은 코로나 때 이주여성 참여자들이 (자기 생업에서) 다 잘렸어요. 대부분 서비스직이니까. 그때 이분들이 시간이 남는 거야. 그때 와서 우리랑 고구마도 좀 하고 사탕수수 키워서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런 것도 해보고. 여기 보면 이 터널이 아열대 채소가 대부분 유인해줄 시설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터널 설치하고 아열대 연구소와 협력해서 작물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 공간인데, 여기는 참여 기관이나 그룹마다 공간 나누어서 할당해주고 ‘뭐 필요해요’ 하면 그냥 심어줘요. 한번 해보게 하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 아니까. 심고 싶다고 하면 다 심으라고 해요.” (사례 F)

“이거는 당근 심어놓은 박스 텃밭인데, 휠체어 타는 분들이 농장에 와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분들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높이를 66cm로 맞추려요. 폭도 드나들 수 있게 넓히고 여기에 당근이랑 다양한 것 심어놔요.

이파리 뜯고, 향기 맡고, 풀도 뽑고.”(사례 F)

제주 담을받은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참여자들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의해 농장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농장 시설과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정비하였다. 휠체어 높이에 맞는 박스 텃밭을 꾸리거나, 시각 장애나 활동성이 적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향기가 진한 식물과 독특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작물을 함께 구성하였다. 이주여성들이 직접 가꾸는 열대성 작물은 작물의 특성에 맞게 덩굴 터널이나 온실 등 재배 환경을 갖추었다(이현진, 2024: 93). 참여자들이 다양한 사람과, 지역과, 농작물과 더 많이 접촉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3) 분석

공동체 돌봄에서 결속적 관계는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결속적 관계를 통해 지역에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가기 때문이다. 교량적 관계는 참여자들의 삶에 즐거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완사넷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사회적 농업을 이해하는 사회복지사가 참여자를 1대1 대면 면접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 아 가정, 시설 이용 노인, 다문화 여성, 시설 비거주 성인 장애인이 사회적 농업 참여 후 ‘나에게 달라진 변화’로서 모두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참여자들이 정기적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 어울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량적 관계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표 5〉 공동체 돌봄의 특성-관계성

구분	완주 은혜의 농장	제주 담을밭
관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속적 관계: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킹, 완주떡메마을 등 조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 교량적 관계: 지역주민의 돌봄 서비스를 위한 지역조직화, 주민 주도의 돌봄 관계망 형성, 노인 교실을 통한 사회적 관계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속적 관계: 한살림제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등 한살림 공동체, 제주 사회적 농업연구회 회원 농장들과 밀도 높은 교류 하며 사회적 농업의 지역사회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협력함 ■ 교량적 관계: 참여자의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열린 농장을 지향, 농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기획

4) 자산기반성

(1) 완주 은혜의 농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장 사업이 있기 전에 완주군에는 지역의 자체 사업인 두레농장이 있었다. 완주군은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두레농장을 운영하였다. 사업 시작 후 10년이 지나자 마을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두레농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완사넷이 2018년부터 두레농장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것을 계기로 완사넷 회원 조직들이 사회적 농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예산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했다. 고산면에서는 다정다감협동조합의 청년 장애인들의 자조 모임인 꿈바라기 농장이, 비봉 평치 두레농장에서는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활동하는 이랑협동조합이, 소양 인덕 두레농장에서는 성인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은혜의 동산이 사회적 농업

을 추진하였다. 더불어해봄의 모법인인 은혜의 동산이 인덕 두레농장을 1년 정도 운영하다 시설 부지로 옮기며 은혜의 농장이 설립되었다(이현진, 2024: 107-108).

“농촌에서 뭘 하면 텃새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 문제에 봉착했어요. 아무래도 성인 장애인들이다 보니 시골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가 한다고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꾸준히 두어 달 농장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까 관심을 주시고 몇몇 분들이 일손을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농사 멘토로 한 세 분 정도 상추 재배를 도와주셨어요. 처음에 장애인들이 상추 심으면 뿌리가 드러나게 심는다랄지, 수확하면서 다 뜯는다랄지 하거든요. 못하면 그 어르신들은 묵묵히 다시 심어주시고 시설인들이 가고 나서도 농장 둘러봐 주시고 그러셨어요. (...) 그러다가 사건이 있었어요. 심어놓은 상추가 한참 잘 자라던 6월에 은혜의 동산 식구 중 한 명이 혼자 두레농장에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시설에서 농장까지 걸어가면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뜨거운 날 거기를 혼자 찾아가서서 더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를 뜯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두레마을 어르신이 보시고 연락을 주셨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주일째 한 번 농장에 가는 것이 쉽지 않고 상추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걱정되었다는 거예요. 참여자들이 농장 활동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하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안전 문제도 있고, 지역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소원한 면도 있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농장 위치를 시설 주변 텃밭 부지로 옮겼어요.” (사례 A)

2020년 3월에 은혜의 동산 인근 부지의 텃밭을 임대하며 비닐하우스 4동을 지었다. 자재비는 기관 대표의 사비로 충당하고 비닐하우스를 짓는 일은 지역 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시설과 인접해 있어 참여자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은 높아지고, 농장을 활용한 사업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공

동체 공간의 기능은 줄어들게 되었다. 쇠퇴하는 지역의 공간을 공동체 복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다시 시설의 한 부분으로 귀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완사넷에서 진행한 다른 두레농장들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2) 제주 담을밭

제주 담을밭은 한살림제주의 지역살림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돌봄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타진해보긴 했지만, 처음부터 한살림제주와 밥상살림, 한살림의 생산자들과의 돈독한 협력에서 시작하지 못했다.

“처음에 이게 우리 생협(한살림제주)과 밥상살림, 그리고 생산자연합회라는 어떤 조직간의 얘기가 잘 되어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살림제주에서 하는 지역 돌봄 사업과 이 사회적 농장이 가지고 있는 농촌 돌봄이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된 거고(…)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생산자 공동체에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큰 호응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구좌 공동체 대표님이 담을밭 대표하고, 저하고 귀촌한 청년 이렇게 세 명이 운영했죠.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기회에 신촌지역으로 확대되었어요.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고 생산자연합회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다른 농장 부지를 임대할 수 있었죠. 신촌 부지가 나왔을 때 누가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2기까지 진행되었던 때라 1기, 2기 수료생들 몇 명하고 신촌 부지가 보고 그러면서 수료생들의 공동체 텃밭을 조성할 수 있었죠.” (사례 D)

그러나 평소 한살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해온 생산자와 조직이 있었기에 사회적 농장은 공동체 자산이 될 수 있었다. 농장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교류하며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농장의 수확물까지도 나눔 냉장고,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사회적 농업 활동의 결과인 수확물은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가 된다. 담을밭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 원칙을 세우는 경험은 사회적 농장이 공동체 자산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

“우리는 수확하면 원칙이 일단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소방서 이런 데에 다 나눠줘요.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남은 걸 어떻게 나눌지 수확한 사람들이(참여자)랑 결정을 하는 거야. 네가 이만큼 가져가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작년에는 지역아동센터랑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때 옥수수를 천 개를 심었어요. 그래서 수확한 걸 파는 거야. 그때 애들이 그 옥수수 자기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물 한번 준 거 빼고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하면서 애들하고 논쟁 끝에 원칙을 정했어. 너희가 파는 가격은 너희가 결정하는데, 물건 가격의 20%는 사회공헌 기금을 낸다. 그리고 직접 판다. 그래서 오일장에 가서 4번 팔았어요. 장날에. 처음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잘 팔아와. 기금 내고 남은 돈은 또 자기거래. 근데 농장에 조금은 애도 있고 적게 온 애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원칙을 정했어요. 참석한 시간당 배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주 왔거든. 그래서 8명이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꾸준히 제일 많이 온 애가 3만 원 받아 갔어요. 그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름으로 사회복지재단에다 기부했지.” (사례 F)

(3) 분석

지금까지 주체성, 연결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은 돌봄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되어,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된 돌봄의 장은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완주의 두레 농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10여 년이 지나면서 참여자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어버린 두레 농장의 공간은 새로운 활동을 이어가는 공동체 자산이 되었다. 두레 농장에서 활동했던 경험은 새로운 사회적 경제 주체를 만들고, 이들은 다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완주 은혜의 농장 역시 소양면의 새로운 공동체 자산이 되었다. 제주 담을밭은 구좌읍 평대에 이어 조천읍 신촌으로 확대되며 귀농·귀촌인들과 참여자들의 교육장이자 쉼터가 되고 있다.

〈표 6〉 공동체 돌봄의 특성-자산기반성

구분	완주 은혜의 농장	제주 담을밭
자산기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자산으로서 공동체 농장 확대 시도 ■ 사회적 농장을 중심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며 지역의 중요한 돌봄 자원으로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와 농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농장, 활동의 결과물인 수확물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돌봄의 산물

V. 결론

사회적 농업은 양적으로 성장을 하면서도, 이를 실천하는 현장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 농업과 돌봄 활동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농촌과 지역사회가 직면한 복지의 공백과 돌봄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작용할 기대감도 존재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농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동체 돌봄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실천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우선 사회적 농업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체 돌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동체 돌봄은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을 국가와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다. 공동체 돌봄은 주체성, 연결성, 관계성, 자산기반성이라는 특성이 발휘될 때 사적 돌봄과 공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의 정체성을 정리해보면,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주체성) 일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다양하게 상호지원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하고(연결성), 연결된 이들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느슨하지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농업 활동을 통해 교류하는(관계성), 사회 인프라로서 돌봄의 장(자산기반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농업이 실제 현장에서 공동체 돌봄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질적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농장의 모범인의 성격과 사회적 농업의 유형,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 관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택한 완주 은혜의 농장과 제주 담을밭 사례를 살펴보았다.

완주 은혜의 농장은 사회복지법인을 모범인으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지역서비스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두터운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정과 다양한 복지 영역을 연계하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역 곳곳을 살피며 적재적소의 돌봄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 담을밭은 생활협동조합을 모범인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아닌 생협 단위의 연결망을 형성한 사회적 농장이다. 제주는 지역적 특성상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거점농장과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주의 독자적인 사회적 농업 발전을 위한 연대가 이루어졌다. 두 곳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 돌봄의 특성이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역주민들이 핵심 주체로 등장하며, 농업과 비농업 분야와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속적 관계를 통해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교량적 관계를 통해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봄의 장소로서 농장은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농업은 공동체 돌봄으로서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 물론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사회적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다. 또한, 사회적 농업 법제화 이후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공동체 돌봄의 특성들이 발현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이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2024년 03월 22일: 접수/ 2024년 04월 11일: 수정/ 2024년 05월 07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김보영. 2021. “커뮤니티 케어가 아직 되지 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복지동향』 270: 47~53.
- 김승섭. 2017. 『이름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 김영란·조미형. 2023. “사회적 농업으로 농촌복지실천이 가능한가?”, 『비판사회정책』 80: 7~34.
-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0(3): 492~520.
- 김용득. 2019. “지역사회 기반 복지관의 공동체주의 지향성 강화 필요성과 과제: 공공성 담론의 확장과 사회서비스 운영 원리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2): 203~232.
- 김은정. 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153~176.
- 김정섭. 2017. “사회적 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 『모심과 살림』 9: 33~45.
- 김정섭. 2018.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홍성군 장곡면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21~134.
- 김정섭. 2020. “사회적 농업의 이해”, 『지역과 농업』 9~35.
- 김정섭. 2023.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실천 방향”, 『2023 사회적 농업 기본교육 자료집』 9~49.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미간행.
- 김정섭·김수린·하인혜. 2022. 『서울시 사회적 농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 더 케어 컬렉티브. 2021. 『돌봄선언』, 정소영 역, 니케북스.
-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 37: 113~153.
- 리사 앳킨스·멀린다 쿠퍼, 마르티즌 코닝스. 2021.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김현정 역, 사이.
- 백영경. 2017.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론적 접근을 위한 시론”, 『ECO』 21(1): 111~143.
- 백재중. 2018. 『자유가 치료다』, 건강미디어협동조합.
- 석재은. 2020. 『한살림과 돌봄운동』, 모심과살림연구소.
- 야스토미 이유무. 2018. 『단단한 삶』, 박동섭 역, 유유.

- 에릭 클라이넨버그. 2019.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서종민 역, 웅진지식하우스.
- 오세근·이명호. 2022. “정신장애인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당사자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함의와 사상적 체계화의 방향 설정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5(1): 105~148.
- 이현진. 2024.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 연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현진·김홍주. 2022. “사회적 농업을 통한 공동체 돌봄의 실현 조건”, 『지역사회연구』 30(1): 87~118.
- 이효진. 2022. “사회적 농업과 농촌사회 돌봄-완주군 은혜의농장 사례를 중심으로”,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내부자료(미간행).
- 장수정. 201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 연구: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2): 1~31.
- 전용일. 2019.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농업육성방안’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방안 고찰”, 『법학논고』 67: 341~369.
- 조귀동. 2023. 『이탈리아로 가는 길』, 생각의 힘.
- 최영. 2024. “돌봄권과 돌봄의 사회화”, 『복지동향』 303: 12~20.
- 홍덕화. 2018.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이상과 현실: 한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ECO』 22: 243~276.
- 황수철. 2017. “다기능 농업의 확산을 위해”, 『농정연구』 63, 농정연구센터.
- 힐러리 코덤. 2020. 『래디컬 헬프-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 박경현·이태인 역, 착한책가게.
- Iacovo, F. D. 2009. Introduction, in F. Di Iacovo and D.O’Conner(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홍용희 외 역. 2000. 『질적 사례 연구』, 창지사.
- 佐野真紀(Sano, Maki). 2019. “自立を支援するとはどういうことか(2)-身体感覚から「みずから」と「おのずから」を感じる実践—”, 『障害者教育・福祉学研究』 15: 19~24.

Characteristics of Social Agriculture as Community Care : Focus on Social Farms in Wanju and Jeju

Lee, Hyun-Jin
(Wonkwang University)
Kim, Hung-Ju
(Wonkwang University)
Kim, Ja-Kyung
(Jeju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social agriculture has experienced rapid quantitative growth and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policy initiatives and legal frameworks. However, there is increasing confusion regarding the identity of social agriculture in practical settings due to the convergence of agricultural and care activities within the same spa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social agriculture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and institutionalization by understanding the direction and values it should pursue through discussions on community care. To achieve this, firstly, the concept of community care, which is crucial for constructing the identity of social agriculture, was analyzed. Community care involves collectively addressing care needs in the local community rather than solely relying on the state or market. Summarizing the identity of social agriculture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are, we can define it as follows: (Agency) Stakeholders and local residents living together in the community's everyday life. (Connectivity) Building interconnected networks enabling diverse mutual support, relying on each other. (Relationality) Fostering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or, albeit loose, intimacy among connected individuals through agricultural activities. (Asset-based community care) Serving as a social infrastructure for care. Secondly, four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are were extracted and analyzed through case studies of social farms in Wanju and Jeju to understand how these

characteristics are embodied in the practice of social agricultu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se characteristics are commonly manifested in both cases. Local residents emerge as central agents, forming diverse networks across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domains. Through enduring relationships, social farms ensure sustainability, while transitional relationships initiate changes in participants' lives. Moreover, as sites of care, farms emerge as valuable assets to the local community. It is evident that social agriculture holds potential as a form of community care. However, it's worth noting that there are significant challenges faced by social agriculture in practical settings, which were not extensively covered i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albeit to some extent, to resolving the confusion experienced i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social agriculture.

Key words: Social agriculture, Community care, Agency, Connectivity, Relationality, Asset-based community care

저자소개

이현진은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역사회복지실천과 사회적경제를 연구한다.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의 먹거리 돌봄, 사회적농업,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사회적농업을 통한 공동체 돌봄 실현 조건’, ‘농어민의 기후위기 인식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mail: jinhye88@hanmail.net

김홍주는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관심분야는 가족정책, 농촌사회학, 먹거리 사회학, 지역사회학, 사회적경제, 사회복지학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지역사회복지론-이론, 현장, 사례』, 『사회적경제와 공공성』(편저)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북극 기후변화와 이누이트의 먹거리 미보장 실태-캐나다 캐임브리지 베이로 사례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등이 있다.

E-mail: kanddol@wku.ac.kr

김자경은 일본 큐슈대학 생물자원환경과학부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류경제학 중심의 농업경제학에서 로컬푸드, 협동조합, 커먼즈(공동자원) 그리고 마을로 연구의 주제가 계속 바뀌고 있으나, 항상 ‘농’을 연구의 중심에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동자원의 공동관리에 입각한 주민자치 사례 분석 연구-제주의 농촌마을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Commons Perspectives in South Korea -context, fields and alternatives』(공저) 등이 있다.

E-mail: sojunol@hanmail.net